

# 광우병 쇠고기 수입(운송) 저지 투쟁계획

## 1. 투쟁 기초

-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.
- 고시가 강행될 시 운송저지 등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고 전개한다.
- 운송저지투쟁은 비폭력 평화적 방식으로 완강하게 진행한다.
- 신속한 운송저지를 위해 고시발표 직후 가맹산하조직은 비상동원체계로 전환한다.

## 2. 투쟁요구(국민대책회의 요구와 동일)

- 광우병 위험 쇠고기 협상무효화와 정부고시 철회 및 전면재협상!
- 협상책임자 (정운천 농림부장관,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대표) 파면!
-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공개사과!
- (가칭)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!

## 3. 투쟁계획

### 1) 정부고시 발표 전

- 선전전  
부산, 기흥을 중심으로 운송거부투쟁에 나선 운수노조 선전전에 가맹산하조직은 힘 있게 결합한다. (경기도 기흥은 22일(목) 15시부터)
- 기자회견  
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고시반대를 촉구하고 고시를 강행할 시 운송저지투쟁 등 강력한 반정부투쟁을 선포한다.
- 촛불집회  
5월 24일 서울 촛불집회에 모든 조직을 총력 동원하고 민주노총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공성강화 총력투쟁결의대회 후 고시철회를 위한 지도부 농성에 돌입한다.

### 2) 정부고시 강행 후

- 부산, 경기도, 인천을 중심으로 한 운수노조의 운송거부투쟁과 더불어 민주노총은 파업에 준하는 조합원대중동원으로 전 조직을 가동하여 운송저지투쟁에 즉각 돌입한다.
- 이를 위해 정부고시 발표 직후 휴일에 상관없이 민주노총은 비상동원체계로 전환한다.
- 경기도 12곳과 인천1곳, 총13곳의 쇠고기 물류창고에 조직역량을 배치하여 운송저지투쟁을 전개한다.
- 총연맹에 운송저지투쟁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종합지휘체계를 구축한다.